

20~23일 제주도 매우 많은 눈, 강추위

제주도 매우 많은 눈, 올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 강풍과 풍랑 유의

주요 내용

- 20일(수)부터 산지·중산간 매우 많은 눈, 20일(수) 밤 해안 적설 시작
- 21일(목)~22일(금) 대설특보 확대·강화, 23일(금) 오전까지 폭설 주의
- 당분간 강추위, 강한 바람과 해상 매우 높은 물결 유의



[12월 20~23일 기압계 모식도]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이용섭)은 오늘(20일(수))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낮아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으며, 중산간 이상의 지역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겠고, 오늘(20일(수)) 밤에는 해안지역으로도 눈이 내려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번 눈은 23일(토) 오전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제주도에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다며, 강추위와 매우 많은 눈과 강풍·풍랑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고자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

[적설과 추위 전망]

- 현재(20일 11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해기차(서해상의 해수면 온도와 찬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에 따른 불안정)에 의해 형성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으며,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산지와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20일) 밤부터 해안지역에도 점차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적설) 21일(목) 새벽부터 22일(금)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어 대설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23일(토) 오전까지 장기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많은 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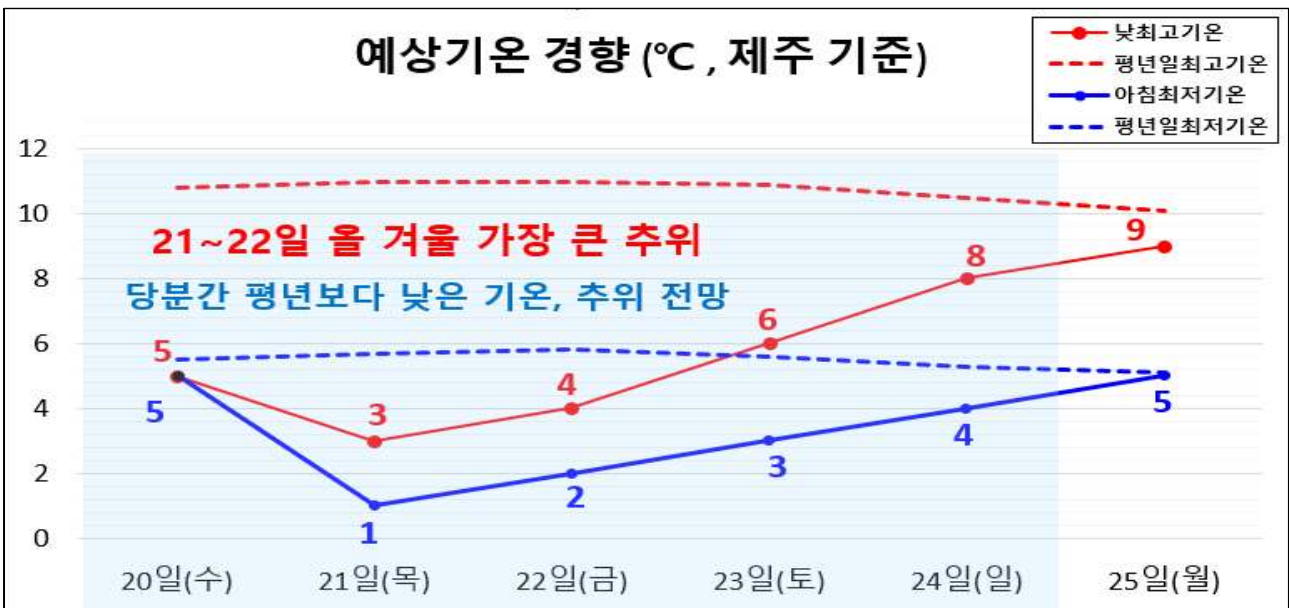
-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 고립될 가능성, 사전 교통 상황 확인, 차량 이용 시 월동 장비 준비 철저
- 눈 내리는 지역 가시거리 급격히 짧아지겠고, 전 지역 영하권으로 빙판길 되는 곳 많겠음,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
-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여 빙판길 예상, 등산객과 보행자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
-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유의

< 예상 적설 및 강수량(20일~22일) >

- 예상 적설 : 제주도산지 30~50cm(많은 곳 70cm 이상),
 제주도중산간, 제주도동부 10~20cm(많은 곳 중산간 30cm 이상)
 제주도해안(동부 제외) 5~10cm
- 예상 강수량 : 제주도 10~50mm
- ※ 예상 적설 및 강수량 변동 가능성 있으니 최신의 기상정보 참고 바람

○ (기온)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평년보다 10도 가량 낮아지면서 영하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
-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
-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유의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에 대비



[강풍 및 풍랑 전망]

□ (강풍) 현재(20일 11시)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22일(일)까지 강풍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 특히, 21일(목)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110km/h(30m/s) 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 (풍랑) 또한,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서쪽면바다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22일(금) 밤까지(남쪽면바다 23일(토) 새벽까지) 풍랑특보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분석하였다.
- 특히, 21일(목) 새벽부터 오후사이 제주도남쪽면바다와 남해서부서쪽면바다, 제주도서부앞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랑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밝혔다.
- (주의사항)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야외 시설물 점검 관리와 높은 파고에 의한 해안가 및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여행객의 항공기, 선박 운항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과 함께,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특보사항과 위험기상에 대해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전문관	한경훈 (064-909-3920)

